

제 288호 · 2014년 12월 24일

미래전략연구본부 국제물류연구실 국제물류투자분석센터

총괄 이성우 실장, 감수 길광수 감리위원

KMI

국제물류위클리

K O R E A M A R I T I M E I N S T I T U T E

| CONTENTS |

글로벌물류이슈

1. DB Schenker의 글로벌 물류시장 진출전략

물류정책·사업동향

1. Drewry, 미 서부항만 태업에 따른 선박의 정시성 하락 지적
2. DP World, 파나마와 신규 컨테이너 터미널 논의 중
3. BLUE CARPET, 스페인 항만의 발전 전략
4. CSX, 몬트리올 지역에 신규 복합운송 터미널 개장

물류시장동향

1. 글로벌 LNG 시설 투자 전망
2. 신규 로테르담 터미널 100% 청정에너지로 운영 예정



한국해양수산개발원
KOREA MARITIME INSTITUTE

글로벌물류이슈

□ DB Schenker의 글로벌 물류시장 진출전략



자료 : www.schenker.ee

- DB Schenker는 유럽 전역의 내륙운송과 전세계를 대상으로 하는 항공 화물, 그리고 해상화물 주선 및 글로벌 공급체인 관리 솔루션을 제공하고 있는 토탈 물류업체임
 - Deutsche Bahn은 기존의 전통적인 인프라 기반의 철도운송 사업에서 벗어나 물류 및 글로벌 네트워크 강화를 목적으로 지난 2002년에 Stinnes AG와 Schenker를 인수합병하면서 글로벌 물류 서비스의 기반을 조성하게 되었음
 - Deutsche Bahn은 운송과 물류 부문에서 세계 최고의 위치를 차지하고 있으며 유럽에서 가장 긴밀한 육로 운송 네트워크와 유럽의 가장 큰 철도 화물 회사로서 전문성을 갖추고 있음
 - 현재 DB Schenker는 독일 국영철도회사인 Deutsche Bahn의 자회사로 육상, 해상, 항공화물 까지 처리하는 종합물류사업 부문이며 2013년을 기준으로 DB 그룹 매출의 50% 정도인 약 197억 유로의 매출을 창출했음
 - DB Schenker는 세계의 경제 거점이 되는 2,000여 지역에서 96,000여명의 직원을 통해 고객 서비스와 품질, 지속가능경영에 맞춰진 글로벌 네트워크를 갖추고 있음
 - DB Schenker가 속한 Deutsche Bahn 그룹의 2020년 매출 목표는 약 700억 유로로, 그룹사의 목표 달성을 위해 최근 신흥시장에서의 글로벌 네트워크 확장에 역량을 집중하고 있으며 내부 프로세스 최적화와 전세계를 아우르는 IT 시스템 역량 강화에 힘을 쏟고 있는 상태임
- DB Schenker의 계약물류(Contract Logistics)는 자동차, 소비재, 전자, 산업재 및 헬스케어 부문의 5대 핵심 물류분야가 있음
 - 그중에서 자동차 물류 비중이 높은 사업 구조를 가지고 있으며 독일 산업에 대한 비중이 높기 때문에 최근 몇 년간 산업의 발전으로 자본설비 물류사업의 성공뿐만이 아니라 자동차 수출

에서도 높은 매출을 기록했음

- DB Schenker는 항공화물 주선사업을 강화하기 시작하면서 점차적으로 전자부문 물류수요가 늘어나고 있으며 헬스케어 부문도 증가하고 있는 추세임

< DB Schenker의 주요 물류사업 부문 >

	AUTOMOTIVE	CONSUMER	ELECTRONICS	INDUSTRIAL	PHARMACEUTICAL
Procurement and Manufacturing (inbound & in-house)	- production logistics - SKD (Semi Knocked Down) - CKD (Complete Knock down)	- sourcing and consolidation - production supply	- production VMI - sourcing and consolidation	- sourcing and consolidation - production supply	- Inbound logistics - Production VMI
Fulfilment (outbound)	- finished vehicles logistics	- consumer fulfilment - Retail fulfilment / VMI (Vendor Managed Inventory) - co-packing	- finished goods fulfilment - kitting and configuration	- finished goods fulfilment	- Finished Goods Fulfilment
Service and Aftermarket	- aftermarket logistics	- spare parts logistics - reverse logistics	- finished goods fulfilment	- aero hub - spares depot - spare parts logistics	- spare parts
	CROSS INDUSTRY		- consolidation centre - de-consolidation centre - shared warehouses, VAS		
	SUPPLY CHAIN SOLUTIONS		- 4PL / LLP - strategic network planning - sales and purchase order management		

자료 : Transport Intelligence

- DB Schenker는 모든 운송수단(철도, 도로, 선박 및 항공)을 제공하기 때문에 원스톱 운송이 가능함
 - 2013년에 동 회사는 화물 포워딩 사업을 중동과 아프리카까지 확장하였고 같은 해 아부다비에 합작회사를 설립하기도 했음
 - 2013년 항공과 해상운송 물동량은 전년대비 각각 0.3%, 0.7%가 감소했지만 2014년 상반기 물동량은 2013년 상반기 대비 각각 2.6%, 8.5%가 증가했음
- 최근 DB Schenker는 아시아 물류시장 진출을 계획하면서 다수의 업체들이 경쟁하는 해상운송 대신 철도운송을 선택했음
 - 2014년 9월 DB Schenker는 함부르크를 출발하여 독일을 거쳐 중국 정저우로 가는 철도 운송 루트를 발표했는데 정저우로 가는 열차는 10,214km의 거리를 총 17일에 걸쳐 운행하며 폴란드, 벨라루스, 러시아 및 카자흐스탄 등을 경유함
 - 철도운송은 해상운송에 비해 총 20여일을 단축할 수 있는 장점이 있음
- 700억 유로의 연매출이 필요한 'DB 2020 전략'의 달성을 위해 운송부문과 물류사업부문의 관리 및 철도화물운송사 유럽본부를 프랑크푸르트 한 곳으로 통합해서 기업의 효율성 증진을 진행했음
 - 지난 2013년에는 향후 5년 동안 전세계적으로 30여 개의 새로운 공유 물류센터(Shared

Logistics Centres)를 건립하는 계획을 발표한 바 있으며 각각의 물류시설을 교통의 중심지 인근에 전략적으로 위치시킴으로써 현존하는 물류시설과의 통합하고 투자를 집중시킬 계획임

- 본 전략의 목표는 단일장소에서 항공과 해운의 통합 물류 서비스 제공을 통해 효율성과 생산성을 동시에 향상시키는 것임
- 올해 DB Schenker에서 발표한 것처럼 헝가리 부다페스트 지역에 있는 모든 사무실과 물류관련 시설을 한곳에 통합하는 것과 두바이에 새로운 물류센터를 착공하기 시작한 것 등이 본 전략의 예가 될 수 있음

○ DB Schenker 계약물류 사업의 SWOT분석

○ 강점(strength)

- 철도 인프라의 소유권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유럽 전역의 복합 네트워크를 소유하고 있으며 특히 독일 물류시장의 선두주자로서 입지를 공고히 하고 있음
- 다각화된 사업 운영으로 각 서비스, 시장, 사업부문의 침체가 발생해도 피해를 최소화시킬 수 있음
- 계약물류는 DB Schenker의 차별화된 사업 부문이며 다양한 사업부문(예를 들어 화물 주선업) 등과 시너지 효과를 낼 수 있음
- DB Schenker는 철도 인프라에서 경쟁우위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철송에 적합한 자동차 관련 물류는 회사 운영에서 매우 중요한 부분으로, 독일의 폭스바겐과 같은 자동차 제조사와 밀접한 관계를 통해 러시아 시장과 같은 신흥 시장에서 물류사업을 확장할 수 있는 기회를 얻고 있음

○ 약점(weakness)

- DB Schenker는 유럽 중심적인 기업으로 독일 내수 시장에 초점이 맞춰져 있으며 주로 경쟁이 치열한 성숙시장에서 사업을 진행하고 있음
- 기업의 크기가 방대하고 관료제가 존재하는 국가 소유의 기업 형태가 의사결정의 속도와 유연성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음
- 이해 관계자(독일 정부)의 영향으로 경영진의 사업활동 영역이 제한되고 있음
- 회사의 계약물류 부문의 크기가 타 사업부문에 비해 상대적으로 작고 자동차 산업의 사이클과 밀접한 관련을 가지고 있음

○ 기회(opportunity)

- 동부 유럽의 시장 성장은 시장입지와 자산을 가지고 있는 DB Schenker를 위한 중요한 기회가 되고 있음
- 특히, 지속적으로 성장하고 있는 제약회사들을 위한 콜드체인 물류는 DB Schenker가 새롭게 투자를 시작한 부문임

- 계약 물류부문은 물류시설 및 자산의 글로벌 네트워크 확장을 위한 잠재력을 가지고 있음
- 폭스바겐과의 협업을 통해 중국 물류시장의 발판을 가지고 있으며 주강 삼각주, 상하이, 텐진 등 주요 산업이 입지한 곳에서 물류 사업이 확장될 수 있는 잠재력을 가지고 있음

○ 위협(threat)

- DB Schenker의 수입의 가장 큰 부문을 차지하는 유럽지역(특히 독일)의 장기적인 경기 침체는 물류사업 매출에 부정적인 영향을 초래할 것으로 예상됨
- 우크라이나의 정치적 긴장이 러시아와 관련된 회사와의 물류계약 및 운영, 우크라이나 철도 환적 지역의 보안 및 사업 성과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됨
- 계약물류시장의 대표적 라이벌사인 DHL, CEVA 등과의 경쟁을 통해 시장 점유율 경쟁을 지속해야 하며 수익이 감소할 수 있음
- DB Schenker의 계약 물류 부문은 자동차 산업과 밀접하게 연관이 되어 있는 탓에 자동차 산업의 침체는 계약물류 부문에 심각한 영향을 줄 것으로 예상됨
- 잠정적인 위협이지만, 3D 프린팅의 발전이 DB Schenker의 산업용 예비부품 수송사업에 부정적인 영향을 줄 것으로 전망됨

○ 글로벌 진출 전략 1 : M&A를 통한 적극적인 해외 진출 추진

- DB Schenker는 1990년대부터 세계 각국의 기업인수, 합작투자 등을 통한 글로벌화를 실현하였으며 그 중 기업인수가 월등히 많음
- 동 회사의 최근 10년간의 인수기업 형태를 살펴보면 계약물류와 화물 포워딩이 높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으며 유럽 기반의 다양한 기업들과 인수합병을 체결했음
- DB Schenker는 철도 인프라 기반이 튼튼한 회사로 유럽 전역에 뻗어있는 철도망을 통해 전세계로 연결하는 글로벌 전략을 표방하고 있음

< DB Schenker의 기업인수 현황 >

대상기업	연도	업종	주요 화물	국가
Barnsdale Cartel Damage Solutions AG	2014			독일
Gemadept Logistics	2014	계약물류		베트남
Salem Freight International	2013	화물포워딩		UAE
Euro-Line Panamericana	2013	화물포워딩		파나마
Desert Logistics	2012	계약물류		나미비아
Suomen Kiitoautot Oy	2012	도로운송		핀란드
Jean Heck Group	2011	화물 포워딩		벨기에
Masped-Schenker Kft.	2010	화물 포워딩		헝가리
S.C.Romtrans	2008	화물 포워딩		루마니아
Helms Akeri AB	2008	도로운송		스웨덴
Spedition F.W. Neukirch GmbH & Co. KG	2007	도로운송		독일

대상기업	연도	업종	주요 화물	국가
Spain-Tir	2007	계약물류	소비재 / 유통	스페인
CPI Transport	2006	소비재&폐기물		필리핀
StarTrans Group	2005	항공화물	하이테크	홍콩
Bax Global (Acquired by Deutsche Bahn 2005)	2005	화물 포워딩		
Linjegods	2005	계약물류	소비재 / 유통	노르웨이
Spedpol	2004	계약물류		폴란드
CCW	2003	계약물류		미국
Siemens SPL	2003	서비스부품 물류		
Beijing International Co-operation Centre	2003	서비스부품 물류	자동차	중국
Stinnes Group	2003	화물 포워딩		
Biermann-Schenker	2002	계약물류		포르투갈
Shanghai Expotrans	2002	전시&이벤트		중국
ACCO Logistics	2002	계약물류		오스트레일리아
Anterist & Schneider	2002	계약물류		독일
Joyau Group	2002	도로운송		프랑스

자료 : www.gscintell.com

- DB Schenker는 글로벌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인수합병 이외에도 다양한 기업들과 상호협력 체계를 구축하였고 이로 인해 폭넓은 시장 진출기회를 얻고 있음

< DB Schenker의 얼라이언스 파트너 목록 >

Air France Cargo - KLM Cargo	BLS Cargo AG
Cargolux	China United International Rail Containers Co.
Incheon International Airport Corporation	Eimskip
Estes Express Lines	Exprinter Liftvans Bolivia
Fraport	General Logistics System(GLS)
Hong Kong Air Cargo Terminal Ltd.(Hactl)	ITS International Airport Corporation
Khimji Ramadas Group	Kombiverkehr
Lufthansa Cargo	PFSweb
Port of Felixstowe	Port of Rotterdam
Salem Freight International	Singapore Airport
Teleroute	Volkswagen Logistics

자료 : www.gscintell.com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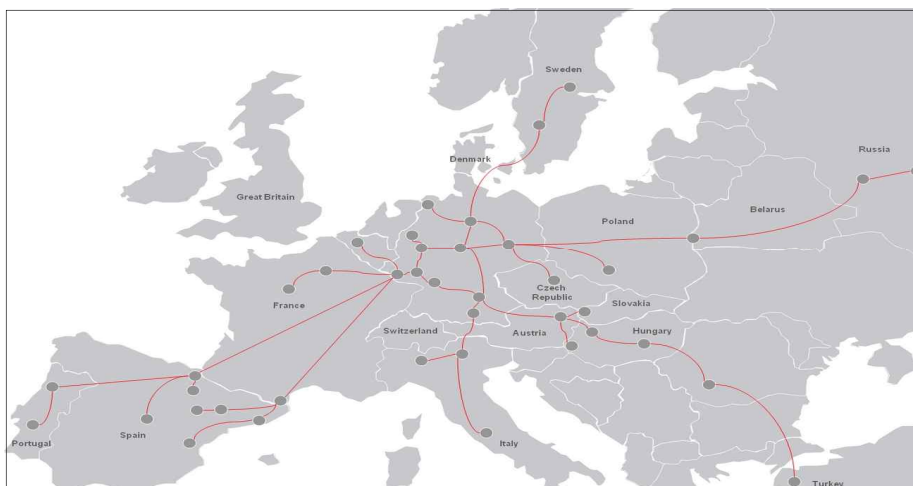
- 현재 DB Schenker는 약 20개의 기업과 얼라이언스 관계를 맺고 있음

- 철도운송에 우위가 있는 DB Schenker는 스위스 철도 운송업체인 BLS Cargo의 지분도 45%를 소유하고 있으며 다양한 지역의 항만에도 철도 운송 또는 복합운송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음

○ 글로벌 진출 전략 2 : 자동차 물류시장 진출 확대

- DB Schenker는 전통적으로 계약물류에서 우위를 보이고 있으며 그 중 자동차 관련 물류가 경쟁력이 높은 분야임
 - 전체적으로 DB Schenker는 복잡하고 광범위한 자동차 사업을 진행하며 완성차뿐만 아니라 거의 모든 종류의 자동차 부품운송 및 기타 물류 활동을 통한 총 매출액은 10억 유로가 넘을 것으로 추정됨
- DB Schenker의 자동차산업을 대상으로 한 계약물류 사업은 주로 조달물류임
 - DB Schenker는 최신식의 물류 운영 시스템을 가지고 있으며 특히 기업에서 조달이 필요한 부품이나 자재의 물류운영에 초점을 맞추고 있음
 - DB Schenker는 독일 하노버에 위치한 폭스바겐 공장 인근에 폭스바겐의 부품 공급업자들을 위한 물류단지를 구축해서 운송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데, 자동차 생산에 필요한 조달 물류를 원활하게 운영함으로써 폭스바겐이 필요한 자동차 부품이 조립라인으로 연결되도록 물류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음
- DB Schenker는 자동차 부품 및 완성차 물류의 관점에서 선도적인 기업으로 자동차 물류에 적합한 철송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음
 - 예를 들어, 자동차 반조립 제품(CKD)을 러시아로 운송할 때 DB Schenker의 자동차용 철송서비스를 이용하는데, 중부유럽에 완성차 이동시 'Automotive RailNet'이라는 서비스를 개발해 제공하고 있음

< DB Schenker의 Automotive RailNet >



자료 : DB Schenker

- DB Schenker의 자동차 물류사업의 핵심은 독일의 자동차 제조사가 주 고객이라는 것이며 이는 지난 수년간 크게 변함이 없는 상태임
 - 독일 완성차 업체인 폭스바겐을 통해 유럽 이외의 지역의 물류 수요도 크게 증가하고 있는 상태임
- DB Schenker의 자동차 물류부문에서 중국은 매우 중요한 시장이 되었음
 - 독일 자동차 제조사가 현지에서 합작투자를 실시하면서 DB Schenker의 중국 자동차 제조업체 비율이 높아지고 있음
 - DB Schenker는 텐진, 상하이 그리고 주강 삼각주에 자동차물류 관련 고객을 위한 대규모 물류 센터를 만들기도 했음
- 러시아는 DB Schenker에게 점차 중요한 시장으로 성장하고 있음
 - 폭스바겐은 CKD 조립공장을 모스크바 남서쪽에 위치한 칼루가에 만들었는데, 독일에서 수송 주요 부품들은 러시아 철도 인프라를 이용해 운송하고 있음
 - 푸조/GEFCO 또한 DB Schenker의 자동차 관련 물류서비스를 이용하고 있음
- 남미지역은 타 지역에 비해 점유율 확대가 쉬워 향후 전망이 높은 지역임
 - 남미에서의 물류 서비스는 크게 화물 포워딩과 혼재서비스에 초점을 맞추고 있으며 서비스의 질의 관점에서 보면 남미지역의 주요 경쟁사는 DB Schenker에 비해 경쟁력이 낮은 상태임
- 동유럽은 러시아행 철송서비스 운영을 위한 관문에 위치하고 있어 DB Schenker에게는 매우 중요한 시장임
 - 동유럽은 상당히 잠재력이 있는 시장으로 DB Schenker의 대표 고객사인 폭스바겐은 동유럽 자동차 시장의 선도 기업임
 - 현재 유럽 이외의 지역에서 시장이 성장하고 있는 국가로는 터키가 있으며 아직까지 터키시장에서 DB Schenker의 입지는 미비한 상태임
- **글로벌 진출 전략 3 : 특수물류시장 진출 확대**
- DB Schenker은 RFID를 이용한 콜드체인 모니터링 시스템을 도입하는 등 과거부터 콜드체인부문에 투자를 지속해왔음
 - DB Schenker는 지난 2010년부터는 14만5천 달러를 투입해 새로운 콜드체인 시스템이 고객에게 적합한지에 대한 파일럿 테스트를 실시하기도 했으며 항공수송용 온도조절 시스템의 클레임 발생을 확인하는 작업도 진행했음
 - 2011년부터는 글로벌 제약회사와 공동 개발한 RFID 온도 모니터링 시스템을 적용했으며 해운 및 내륙, 철도의 콜드체인운송에 앞서 항공운송부터 적용하기 시작했음

- RFID를 이용한 콜드체인 모니터링 시스템은 독일과 미국의 창고에 먼저 적용되었으며 신뢰성을 높이기 위해 최초에는 비행기당 2~5개의 화물을 무작위 추출하여 15분마다 기록되는 온도 자료를 확인하는 작업도 진행하기도 했음
- 현재는 다양한 기능이 있는 콜드체인 전용용기인 Smart Box의 사용을 통해 GPS를 통한 실시간 위치확인, 온도·습도화물 상태 파악, 화물개봉 알람, 진동 및 침입 방지 등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음
- 최근 DB Schenker은 80억 달러에 달하는 호주 Queensland의 수출입시장 진출확대를 위해 Brisbane 국제공항에서 약 9km 떨어진 곳에 새로운 콜드체인 물류센터를 개장하기도 했음
 - 11월에 개장한 새로운 물류센터는 건화물 처리시설 외에 1,100sqm 규모의 콜드체인 화물만을 위한 따로 공간이 배치되어 있음
 - 호주의 콜드체인 창고는 헬스케어상품 및 부패성 상품을 취급할 수 있도록 구성되어 있는데, 육류, 해산물, 유제품, 과일 및 채소, 제과, 제약 및 의료용품 등이 주 대상 품목임
 - 호주 DB Schenker의 Ron Koehler 대표는 향후 10년 동안 천 만 달러를 투자해서 2,500sqm의 창고 외에도 800sqm의 사무실과 콜드체인 화물 전용 대기시설, 저온 창고, 냉각 장치 및 냉동 시설 등도 추가할 계획이라고 밝혔음

< DB Schenker의 콜드체인용 Smart Box >



자료 : www.dbschenker.com

- DB Schenker은 콜드체인 서비스의 질적 향상을 위해 QEP 인증지역을 확대하고 있음
 - QEP(Qualified Envirotainer Provider)는 특수용기 제작사이며 QEP인증사인 Envirotainer사가 요구하는 까다로운 운송조건을 충족하고 인증실사를 통과했을 때만 부여되기 때문에 인증을

취득했다는 것은 안정적인 콜드체인 물류서비스의 제공이 가능하다는 것을 의미함

- 현재까지 DB Schenker는 스위스의 취리히와 바젤, 미국의 인대애나폴리스, 일본의 도쿄와 오사카, 호주의 멜버른과 시드니 등지에서 QEP 인증을 수여받았음
 - DB Schenker의 글로벌 항공화물 담당자에 따르면 향후 전세계로 QEP인증을 확대할 계획을 가지고 있으며 Envirotainer사와 함께 고객이 필요로 하는 콜드체인 수요를 충족시킬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음
- 컨설팅사인 TechNavio의 분석에 따르면 헬스케어를 위한 콜드체인 물류시장은 2014년에서 2019년까지 연평균 13.31% 성장할 것으로 예상됨
- 콜드체인 시장 확대에 따라 DB Schenker를 비롯한 Kuehne Nagel, CEVA 등 다양한 글로벌 메이저 물류사들간에 콜드시장 점유율 확대를 위한 경쟁이 심화될 것으로 예상됨
 - DB Schenker는 특수용기와 같이 차별화된 서비스와 기존 물류센터에 온도조절이 가능한 시설을 추가로 도입하는 등 다양한 전략을 통해 콜드체인 시장의 점유율 확대를 추진할 것으로 보임

자료 : www.gscintell.com, 2014.12.22 / www.logisticsmagazine.com.au, 2014.11.10 / www.fiercepharmamanufacturing.com, 2011.7.2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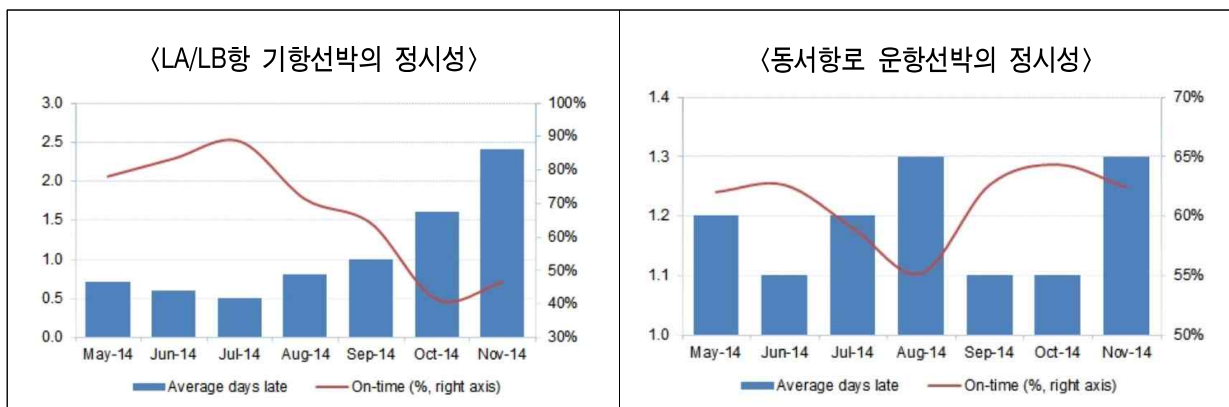
이홍원 연구원 (☎ 02-2105-2897, hongwon@kmi.re.kr)

양규석 연구원 (☎ 02-2105-2928, yks8065@kmi.re.kr)

물류정책 · 사업동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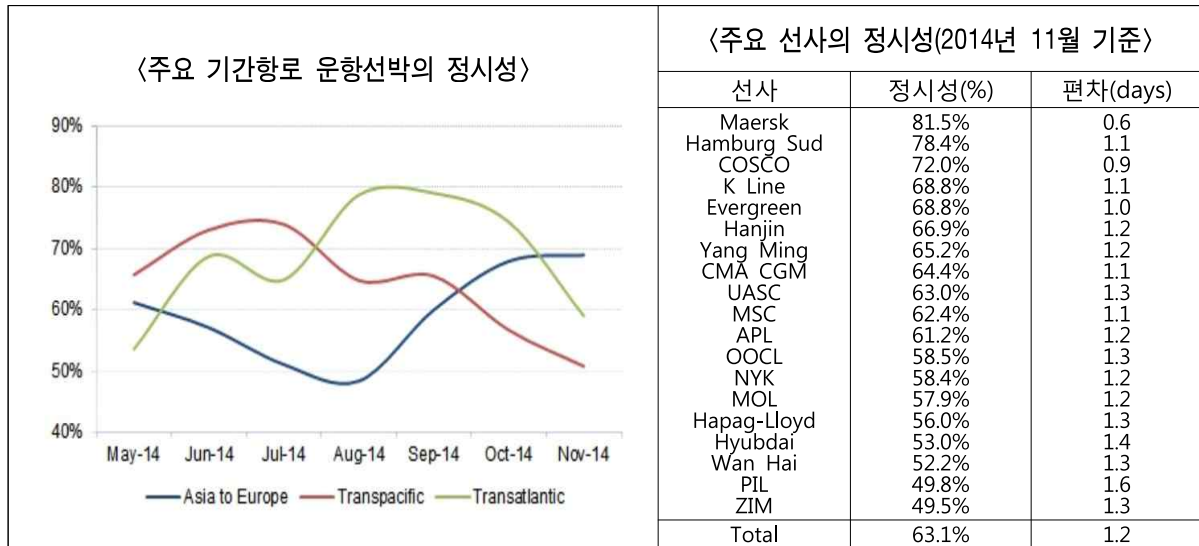
□ Drewry, 미 서부항만 태업에 따른 선박의 정시성 하락 지적

- 미 서부항만의 노조 태업이 장기화되면서 컨테이너선박의 정시성이 크게 하락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음
 - 이는 드류리(Drewry)가 발간하는 주간리포트(2014년 52주차)에서 지적된 것으로 이에 따르면, 미 서부항만에서 선박 대기시간이 1주일을 넘는 경우도 있는 것으로 알려짐
- 미 서부항만의 태업에 따라 태평양항로를 운항하고 있는 선박들의 운항스케줄은 지난 11월에 비해 평균 2.4일 늦어지고 있으며, 이는 평상시에 비해 약 2배나 지체된 것임
 - 미 서부의 대표적인 항만인 LA/LB항의 경우 지난 7월 기항선박의 정시성이 90%에 달했으나 10월과 11월에는 41%와 46%로 크게 떨어졌음
 - 이에 따라 태평양 항로를 운항하고 있는 주요 선사들은 주간 서비스를 유지하기 위해 미 서부 항만에 기항 이후 아시아로 돌아오는 항해에서는 선박의 운항속도를 높이고 있는 것으로 알려짐
- 이 같은 문제로 드류리는 미국 주요 수입 화주들이 항공을 이용한 운송을 선택하는 등 선박의 지체에 따른 문제에 대응해야 한다고 지적하고 있음
 - 이에 따라 일시적으로 항공 화물운송료가 오르고, 수요가 창출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지적됨
 - 한편 동서항로인 태평양항로와 대서양항로의 경우 지난 10월과 11월 사이 64.3%에서 2.4%로 정시성이 떨어진 것으로 나타났음



- 태평양항로와 대서양항로의 운항 선박의 정시성이 크게 하락하고 있는 가운데, 선사별로는 11월 중 머스크 라인(Maersk Line)이 가장 높은 정시성을 보였으며, 함부르크 수드(Hamburg Sud), COSCO 등이 그 뒤를 잇고 있음

- 드류리는 내년까지 이번 사태가 지속될 것으로 전망하면서 화주들의 대응책이 요구된다고 지적함



자료 : Drewry, *Container Insight*, 2014.12.21.

김태일 부연구위원 (☎ 02-2105-2755, ktizorro@kmi.re.kr)

□ DP World, 파나마와 신규 컨테이너 터미널 논의 중

- DP World가 파나마에 신규 컨테이너 터미널을 설립하는 것에 대해 파나마 정부와 논의 중인 것으로 밝혀짐
 - Isabel Saint Malo 파나마 부통령 겸 외교장관은 지난 11월 두바이 방문기간 중 파나마 운하 확장에 따른 통행 물동량 증가를 뒷받침할 수 있는 인프라 건설에 대해 DP World와 논의
 - 파나마 부통령은 “DP World가 보유한 모델에 관심이 있다”고 아부다비 영자지인 The National에 밝힌 바 있음
 - DP World는 화물 운송 및 저장 비용을 최소화하기 위해 컨테이너 터미널과 함께 통합 물류 센터 제공을 포함한 모델을 제안한 것으로 알려짐
- DP World가 이미 중남미 지역에 컨테이너 터미널을 다수 보유하고 있고, 파나마 또한 터미널 운영을 민영화한 경험을 보유하고 있어 향후 현재의 논의가 긍정적으로 전개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음
 - DP World는 도미니카 공화국의 Caucedo, 수리남의 Paramaribo, 페루의 Callao, 아르헨티나의 Buenos Aires에 터미널을 보유하고 있고, 브라질 산토스에 신규 터미널을 개발 중에 있음
 - DP World는 Caucedo와 함께 파나마의 터미널을 환적 허브로 육성할 계획임
 - 한편 파나마의 Balboa와 Cristobal항은 허치슨에, Colon 터미널은 에버그린에 의해 운영 중임
- 파나마는 현재 2016년 1월을 목표로 향후 13,500 TEU 급 선박이 통행할 수 있도록 운하 확장공사를 진행하고 있음
 - 현재 파나마 운하의 통항선박 사이즈는 평균 4,500 TEU급이며, 수에즈 운하는 7,500 TEU임
 - The National지는 Drewry를 인용하여, 파나마 운하 확장이 완료되면 이같은 상황이 역전 될 수도 있다고 언급했음

자료 : www.thenational.ae, 2014.11.13 / Business Monitor, 2014.11.26.

송주미 전문연구원 (☎ 02-2105-2872, jmsong@kmi.re.kr)

□ BLUE CARPET, 스페인 항만의 발전 전략

- 스페인은 유럽에서 가장 긴 해안선을 가진 나라로서(약 8,000km), 북아프리카와 유럽 연결의 요충지에 위치하고 있으며, 남유럽 물류 중심국가로의 성장 전략을 추진 중에 있음
 - 특히 전략적인 해상운송 루트를 활용한 해상운송 중심국가로의 성장을 도모하고 있으며, 이를 위해 'BLUE CARPET'이라는 항만 발전 전략을 마련했음
 - 'BLUE CARPET'은 역동적인 스페인 문화와 수려한 항만시설이 어우러져 화려한 블루카펫과 같은 바다를 의미함
- 스페인은 총 46개의 항만을 개발했으며, 항만별 위치, 규모, 성격, 정부 정책 등에 따라 28개 항만 공사를 통해 운영¹⁾되고 있으며, 28개 항만공사는 마드리드에 위치한 스페인 항만공사(Puertos del Estado)에 의해 관리 · 운영되고 있음
 - 스페인의 대표 항만으로 바르셀로나(Barcelona), 발렌시아(Valencia), 빌바오(Bilbao) 항만 등이 있음

< 스페인 항만 현황 >



자료 : www.puertos.es

1) 스페인의 28개 항만공사는 기본적으로 한 개의 항만공사가 한 개의 항만을 운영하지만 경우에 따라서는 한 개의 항만공사가 여러 개의 항만을 운영하기도 함.

예를 들어, Balears Port Authority의 경우 Port of Palma, Port of Alcudia, Port of Eivissa, Port of Mao, Port of La Savina와 같이 5개 항만을 운영함.

- 스페인 항만 경제를 통해 발생하는 GDP는 전체 스페인 GDP의 1.1%, 물류부분 GDP의 20%를 차지하고 있으며, 35,000여개의 일자리와 11만명 가량의 고용을 창출하고 있음
- 'BLUE CARPET' 전략의 핵심은 유럽 굴지의 관광국으로서 스페인의 관광산업 분야 위상과 지정학적인 위치를 활용하여 크루즈 선박의 주요 기점으로 자리잡고자 하는 것임
 - 이에 따라 고급스러운 크루즈 터미널 건립, 연계 수송망 확충 등의 전략을 실행하고 있음
- 이와 함께 주요 항만들의 안전성 확보와 원활한 입출항 확보를 위한 다양한 시설 확충을 통해 최고의 항만서비스를 제공하고자함

자료 : www.puertos.es, 2014.12.

손보라 연구원 (☎ 02-2105-2914, bora62@kmi.re.kr)

□ CSX, 몬트리올 지역에 신규 복합운송 터미널 개장

- CSX²⁾가 캐나다 몬트리올 근처에 있는 살라베라-드-발리필드에 1억 달러 규모의 복합운송 터미널을 개장하여 몬트리올 지역 선사들의 CSX의 복합운송망 접근성이 향상 될 것임
 - 약 34만m² 규모로 캐나다 최초의 철도 복합운송 터미널은 북미자유무역협정(NAFTA) 파트너간의 연안 무역에 지속적인 성장을 가져올 전망이다
 - 터미널은 매년 10만 로드를 처리 가능하고 캐나다에서 두 번째로 큰 도시이며 주요 산업인 제조업을 기반으로 한 몬트리올로부터 64km떨어져 있음
- CSX의 관계자에 따르면 몬트리올 근처에 터미널은 개장하면 신규고객과 관계 형성의 기회를 얻게 되며 신규 시장의 접근성을 확대하고 북미 공급사슬에 효율성을 향상시킬 수 있음
 - 3대의 최신식 갠트리 크레인을 가진 신규 터미널의 열차편은 CSX의 오하이오 북서쪽에 있는 복합물류 허브를 통해서 이동할 예정이며 미국과 캐나다를 가로지르는 시장에 효율적인 접근성을 제공할 것임
 - 허브 앤 스포크 방식의 사용을 위해 CSX는 미국 오하이오주 볼티모어에 터미널을 건설하고 있으며 선사들에게 더 많은 입출항의 장소를 제공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음
- 발리필드에 개장한 신규 복합운송 터미널은 유일한 철도 복합운송으로 점대점(point to point)회랑 서비스를 제공하고 허브 앤 스포크 모델 방식을 통해 중소 시장에 진입하여 복합운송 수요를 증가 시키도록 활용할 것임
 - CSX 복합운송 물동량은 3/4분기에 69만 1,000유닛으로 전년대비 5% 증가하였고 올해 7~9월의 도로 물동량은 39%를 차지했고 이 기간의 매출액은 올해 전체 매출액의 14%를 차지함

자료 : www.joc.com, 2014.12.17.

양규석 연구원 (☎ 02-2105-2928, yks8065@kmi.re.kr)

2) 미국의 화물운송업체로 철도, 복합운송뿐만 아니라 에너지, 산업, 부동산 사업 등 다방면의 사업을 펼침.

물류시장동향

□ 글로벌 LNG 시설 투자 전망

- 2015년에서 2019까지의 글로벌 LNG 시설 부문에 대한 투자가 2590억 달러로 예상되고 있음
 - 이는 2009년 경기 침체 지난 5년간의 투자와 비교했을 때 LNG 시설 투자가 88% 이상 증가된 것을 뜻함
 - 액화 터미널은 총 설비 투자의 2/3을 차지하며, 지난 5년에 비해 90% 성장할 것으로 전망됨
- LNG 설비 투자의 이와 같은 호조로 호주와 중동을 제외한 모든 지역이 플러스 성장을 나타낼 것으로 예상됨
 - 특히, 향후 5년간 LNG 선박 건조 부문에서 중국 조선소의 진출이 급속히 증가될 것으로 기대되고 있음

자료 : www.marinelink.com, 2014.12.19.

김주혜 연구원 (☎ 02-2105-4985, joohye915@kmi.re.kr)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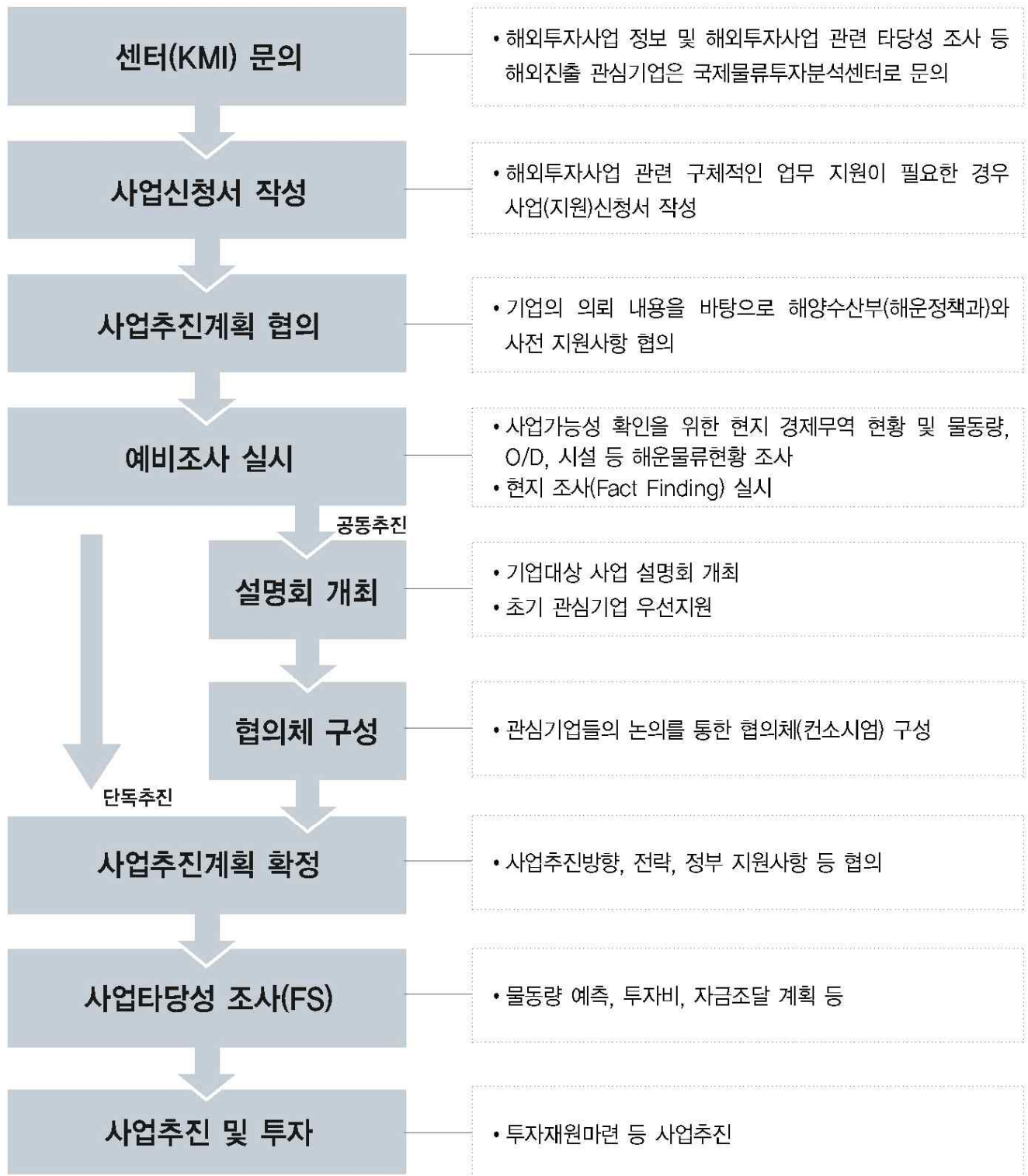
□ 신규 로테르담 터미널 100% 청정에너지로 운영 예정

- 터미널 운영사인 APM 터미널(APMT)은 암스테르담에 본사를 둔 NV Nuon Energy사와 신규 Maasvlakte 2 터미널에 풍력발전 전기 공급을 위한 620만 달러의 계약을 체결함
 - 신규 심해 터미널은 다음 달에 첫 선박의 입항 일정이 있으며 이 터미널은 세계 최초로 현장과 부지외의 지역이 모두 무공해 지역임
- 터미널 관계자에 따르면 신규 터미널의 기술 발전을 자랑스럽게 여기며, 세계 최초 무공해 터미널 운영이 항만환경의 개선과 지속가능한 산업 발전에 공헌할 것으로 기대함
 - 신규 터미널은 이미 세계 최초의 무공해 지역으로 알려져 있으며 모든 부두와 야드 크레인인 전기를 사용하여 움직이고 전기배터리로 움직이는 무인이송장치(Lift-AGVs)는 부두에서 야드 까지 컨테이너를 운송함
 - 또한 닛산으로부터 35대의 전기자동차를 주문하였으며 그 중 16대는 5인승이고 19대는 2인승 밴으로 터미널에서 직원들의 이동수단으로 쓰일 계획임

자료 : www.container-mag, 2014.12.17.

양규석 연구원 (☎ 02-2105-2928, yks8065@kmi.re.kr)

[해외투자사업 추진절차 및 센터 이용문의]



* 기초타당성 조사(실비 부담), 정부간 협상, 투자사업 관련 정보 및 기초 자료 제공